

中 일대일로 정상포럼 김정은 참석할까

26~27일 베이징서 개최
시진핑, 정상들 대거 초청
美 반발에도 마이웨이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포럼에 개발도상국 정상들을 대거 초청, 미국의 견제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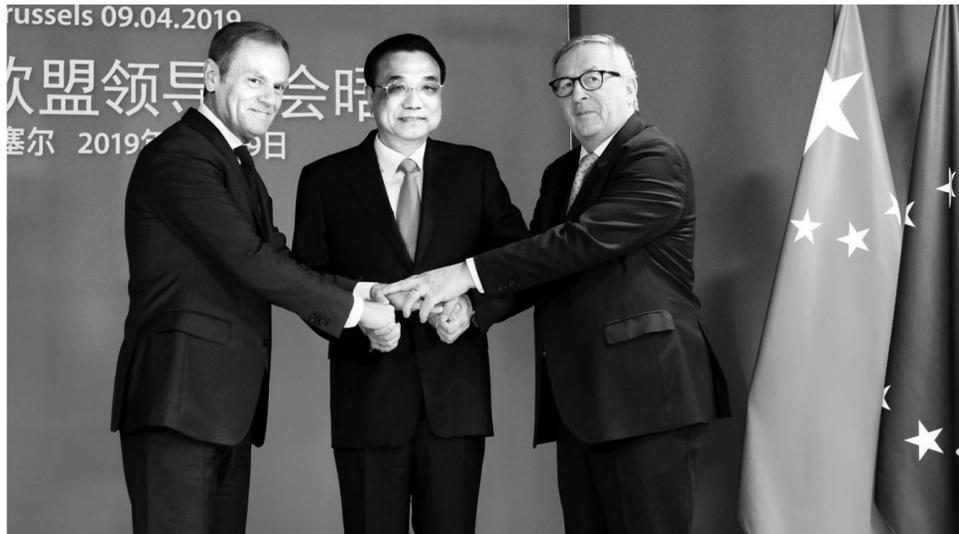
정부는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아름다운 미래 창조'다. 시진핑 주석의 개막 연설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의 원탁 회의, 개별 정상회담, 기업가 대화 등이 예정됐다. 중국은 이번 포럼에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참석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한창이던 2017년 5월에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초청받아 참석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월까지 총 4

차례나 방중한 바 있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선례대로 북한 대외경제상이 다시 올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 특성상 행사 임박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이탈리아와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진핑 주석은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명실공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서 위상을 뽐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대일로에 대해 중국의 패권 전략이자 중국 국영 기업의 이익 추구와 더불어 부채에 기반을 둔 외교술인 '채무 합정 외교'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수십 개국의 정상들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일대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대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전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현재 중국은 전 세계 100여개국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집권 후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건설하자고 제의하면서 시작돼 중국의 핵심 정책이 됐다. /연합뉴스

中·EU 정상회의 한반도 문제 북미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지지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북미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간 화해 추진에 대해 지지를 천명했다. 10일 중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하고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리커창(가운데) 중국 총리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중·유럽연합(EU)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EU의 도날트 투스크(왼쪽)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투스크 의장 및 융커 위원장과 3시간 동안 정상회의를 하고 무역·투자문제 등 양자 간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양측은 공동 성명에서 "EU와 중국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법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면서 "대화를 통해 지역 분쟁과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 대화 유지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의 실현과 남북 간 화해 추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美·中 군사적 충돌 가능성 커져... 대화 틀 필요”

중 베이징대 싱크탱크 보고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를 막기 위해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싱크탱크에 의해 제기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대 남중국해전략상황연구소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화와 충돌의 중간지대를 넘나들면서 중국의 한계선을 탐색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소규모 군사적 충돌을 빚

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군함 등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미군이 행한 항행의 자유 작전은 4번에 불과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11번 수행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러한 작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등 상부의 통제가 이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권한을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위임했다"며 "이는 남중국해의 위험을 확실하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필립 데이비스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 등의 대중국 강경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군사 지휘부 핵심 인물들의 이러한 발언은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 등은 미 해군이 대만해협 등 국제 수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지지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작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더 강력한 군사작전을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브렉시트 불안한 영국인 아일랜드 여권신청 급증

EU시민 확보 '제2의 여권'
벨기에 시민권 취득도 늘어

어떤 형태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되든 유럽연합(EU)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해 두려는 영국인의 '제2의 여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EU 회원국인 인접 아일랜드 여권이 특히 인기다. 아일랜드 시민권을 획득, 이중여권을 받아두면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탈퇴)'가 현실화해도 유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에 불안함을 느끼는 영국인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기방위에 나선 셈이라고 니혼게이자(日本經濟)신문이 10일 지적했다. 런던에 사는 20대 영국인 남성은 아일랜드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현지 출생인 할아버지의 출생증명서를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양친이나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일랜드 국적자면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 외무·무역부에 따르면 작년에 영국 본토로부터의 여권 신청자는 9만8천554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2015년까지는 4만명대이던 영국 본토인의 여권 신청자가 2016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신청자격자가

많은 영국령 북아일랜드 주민의 신청도 크게 늘어 울스터는 우체국에 비치해 놓은 신청서류가 등나는 사태까지 벌어졌 것으로 보도됐다. EU는 사람과 물자, 돈, 서비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회원국 시민이면 원칙적으로 여대 어디든 왕래와 거주, 노동이 가능하다. 영국도 그런 혜택을 누려왔으나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이런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지난 4일(이하) 겨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더라도 90일 이내 무비자 여행을 허용키로 하는 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해 일단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이는 일본인을 비롯한 역외국에도 허용되는 조치다. '제2의 여권' 취득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사업계속계획(BCP)'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한 의류메이커는 영국 국적의 사원들에게 아일랜드 여권 취득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영국인의 EU 시민권 취득은 아일랜드 이외의 국가에서도 활발하다. 벨기에에서는 2016~2018년 3년간 영국인 2900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5년 이전에는 매년 100명 정도였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현저히 증가한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프랑스에서도 영국인의 시민권 획득건수가 2015년 370건에서 2017년 17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美 국방부 10억달러 장벽건설 사업 계약

74km·17km 2개 구간

미국 국방부가 오는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10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부는 텍사스주의 건설사 SLSCO, 몬테나주의 건설사 버나드 컨스트럭션을 뉴멕시코주 엘파소 구간과 애리조나주 유마 구간의 사업자로 각각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사업 시행처는 미 육군 공병단이며 계약 규모는 엘파소 구간이 7억8천900만 달러, 유마 구간이 1억8천700만 달러로 총 9억7천600만 달러다. 이번 사업은 미 국방부가 대만해협 등 국제 수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지지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작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더 강력한 군사작전을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9.1m높이의 말뚝과 1.5m 높이의 차단벽을 설치하고 유마 구간에는 5.5m 높이의 말뚝과 1.5m 높이의 차단벽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병단 대변인은 지난달 엘파소 구간과 유마 구간에 각각 74km와 17km의 장벽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구간에 건설될 장벽의 길이는 도합 91km다. 패트릭 새너현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달 25일 예산 전용을 승인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 회의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4월 중순에 계약이 체결되면 국토안보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유예할지 여부에 따라지겠지만 5월말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